

훈련생이 알아야 할 12가지 에티켓



행복한 직업훈련을 위한 12가지 에티켓!

1 훈련과정 선택 전 세부 훈련내용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자는 실습만 하고 싶어요. 이런 수업은 끝나고 실습시간 늘려주세요.



NCS 편성
운영과정의
カリキュ럼은 변경이
불가해요.

어드바이스

Q. 훈련과정에서 배우는 세부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직업훈련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각 훈련과정에 편성된 NCS 능력단위와 훈련시간은 HRD-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NCS 능력단위에 포함된 세부 훈련내용과 훈련기준은 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훈련과정의 커리큘럼은 NCS 훈련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훈련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훈련과정에 편성된 세부 교육목과 훈련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훈련과정의 세부내용 확인:

2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 평가를 통해 훈련생을 선별하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드바이스

Q. 어떤 훈련과정에 정원보다 많은 훈련생이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선발·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NCS 훈련기준에는 훈련인원에 따른 적정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훈련기관은 NCS 훈련기준과 해당 기관이 보유한 훈련 인프라를 함께 고려하여 훈련과정의 정원을 결정합니다.

TIP! 훈련생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HRD-Net 혹은 훈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훈련과정 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시간에 매너를 지켜주세요!



어드바이스

Q. 훈련시간 중 매너 없는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훈련시간 중 시끄럽게 떠들기, 훈련 장비·재료를 독점하여 사용하기, 특정 훈련생 왕따시키기, 다른 훈련생 위협하기,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 서핑하기 등이 있습니다.

TIP! 훈련시간에 매너를 지키지 않아 훈련생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으며, 학습 분위기 저해로 인해 훈련과정에 참여한 많은 훈련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을 위해 기본적인 훈련 매너를 지켜주세요.

4 대리출석 부탁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어드바이스

Q. 대리로 출석 체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대리출석이 확인되는 경우 훈련생의 훈련 계좌 징지, 계좌 발급 제한에 더해 지원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의 2배 이상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TIP! 훈련생은 출결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출결 체크해야합니다.

5 안전수칙 준수하고, 재해배상 받으세요!



어드바이스

Q.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훈련기관은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합니다.

TIP!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훈련생은 훈련기관이 마련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6 훈련교사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세요!



어드바이스

Q. 훈련교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 A. 훈련교사의 역할은 훈련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훈련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교사의 수업 방식을 존중하고, 훈련교사의 지도에 따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훈련교사에 지원해 주세요.

TIP! 훈련교사와 훈련생 간의 불편한 관계는 훈련의 성과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훈련교사와 훈련생이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 훈련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해주세요!



어드바이스

Q. 훈련에서 제공되는 재료에는 정해진 수량이 있나요?

- A. NCS 훈련기준에는 훈련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정 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이 각 능력단위 훈련기준에 제시된 수행준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알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생들도 훈련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재료를 훈련기관에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TIP! 훈련재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훈련기관이 재료를 관리하고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훈련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훈련재료를 필요에 따라 알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NCS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어드바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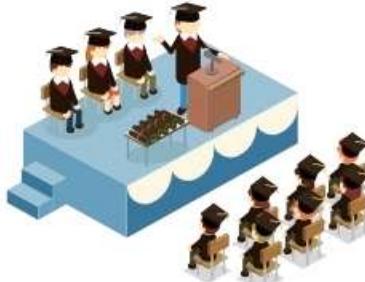
Q. NCS 능력단위 교과목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훈련생이 NCS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법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CS 능력단위 평가를 실시합니다.

TIP! NCS 능력단위 평가는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단위로 개발한 것을 말하며, 각 능력단위에는 직무능력 습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챙겨 놓아야
겠다

9 훈련수료 후 수료증을 받아가세요!



어드바이스

Q. 훈련과정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수료요건(전체 출석일의 80% 이상 출석)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NCS 기반으로 실시되는 창업훈련과정의 수료증을 발급받아 취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남겨주세요!



어드바이스

Q. 수강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HRD-Net 수강평을 입력(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하여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참여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강평을 남기고 싶을 경우에는 비공개 수강평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TIP!

- 훈련종료 후 수강평 입력: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평 등록 접속 후 입력
- 비공개 수강평 입력: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 MY 서비스 » 창업훈련이력 » 비공개 수강평 접속 후 입력

11 고용센터에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어드바이스

Q. 훈련장려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실업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월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200,000원의 추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TIP! 취업성공매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등의 사유로 훈련장려금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12 훈련기관의 취업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어드바이스

Q. 수료 후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훈련기관이외에 워크넷(www.work.go.kr),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등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에티켓 요점 정리!

- ① 훈련과정 선택 전 세부 훈련내용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훈련시간에 떠나기를 지켜주세요!
- ④ 대리출석 부탁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 ⑤ 안전수칙 준수하고, 재해예상 받으세요!
- ⑥ 훈련교사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세요!
- ⑦ 훈련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해주세요!
- ⑧ NCS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 ⑨ 훈련수료 후 수료증을 받아가세요!
- ⑩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남겨주세요!
- ⑪ 고용센터에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⑫ 훈련기관의 취업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권리장전-훈련생편

훈련생이 알아야 할 12가지 에티켓



고용노동부

KOREA 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
KITEC